

노동운동가 하종강

—30년 노동운동의 토대가 된 인천

김진국

송월동에서 태어나 송의동에서 결혼할 때까지 성장

자유공원에 눈이 내린다. 함박눈이다. 맥아더 동상의 어깨와 모자에도 눈이 쌓인다.

“종강아, 그쪽으로 서보라우.”

아버지의 가방에서 모서리가 하얗게 닳은 라이카 카메라가 나올 때면 언제나 배경이 되었던 동상. 아주 어려서도, 인천중학교 입학식 날에도 종강은 맥아더 동상 앞에서 잔뜩 폼을 잡았다. 코 밑에 숨털이 나기 전까지 맥아더는, 아니 맥아더 동상은 인천을 상징하는 멋진 장군이였다.

‘미국 장군의 동상이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까.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을 고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 종강은 더이상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

비둘기들은 눈이 수북이 쌓인 광장 위에 부리를 처박았다 빼내기를 반복하는 중이다. 사람이 다가오건 말건 모이 찾기에 분주한 비둘기 떼를 지나, 그가 인천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석정루’에 오르기 위해서



1968년 인천중학교 입학식날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하종강.

다. 어린 종강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유공원을 산책할 때면 통과의례처럼 들르던 누각이다.

“종강아, 저어기 빨간 기와 지붕 집 보이지? 거기가 네가 태어난 집이라우.”

석정루에 서면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밀집한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인천시 중구 송월동 3가 6번지. 그중에서도 종강이 태어난 빨간 기와지붕 집은 그 빛깔 때문에 더 도드라져 보였다. 붉은 석양이 하나 둘 동네로 떨어질 때면 그

의 집은 더 선명한 빛깔을 띠었다.

종강의 고향집을 알려줄 때마다 아버지의 눈가엔 안개가 어리곤 했다. 그 안개의 의미가 ‘그리움’이었다는 사실을 어린 종강은 잘 알고 있었다. 언제나 형형한 안광을 내뿜던 아버지의 눈이 물기에 젖을 때, 아버지의 시선은 이미 송월동과 만석부두 너머 먼 바다를 향해 있었던 것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한다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우.”

종강이 인천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의 고향이 평양이라고 착각할 만큼 아버지는 입만 열면 온통 당신의 고향 얘기뿐이었다.

집 앞으로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개울과 뒷산을 연분홍빛으로 흠뻑 물들이는 진달래… 소주라도 몇 잔 걸치면 아버지는 그를 앞에 두고 고향의 봄을 반복해서 회상하곤 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평양에서 살았고, 의사 집안이었다. 니 아버이는 전쟁 때문에 가업을 못 이었지만, 너만큼은 훌륭한 의사가 돼야 한다우.



기래서 통일되면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 병 고쳐주며 살아야 한다 우.”

여느 이산가족들처럼 그의 집안 역시 북쪽에 모든 걸 두고 내려온 남북 이산가족이었다.

50년 전 그가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석정루에 서서 송월동을 내려다본다. 그의 고향집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빌라와 사랑의 선교수사회 인천수도원이 들어섰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다. 송월동도 만석부두도 눈에 뒤덮여 새하얀 세상이 됐다. 종강의 가족이 송월동을 떠나 송의동에 정착한 때는 그가 세 살 되던 1957년이였다.

“전세로 살다보니 송월동에서 몇 차례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남구 송의동으로 이사한 건 마침내 저희 집을 장만했기 때문이었지요. 저희가 살고 있던 전세값 14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좋은 집은 아니었고 적산가옥이었어요.”

당시 그의 가족이 이사한 남구 송의동 187번지는 일본인들이 살다 떠난 ‘적산가옥’들이 밀집한 곳이었다. 적산가옥(敵産家屋)은 적의 재산, 즉 일본 집이라는 뜻이다. 일본인들이 공동주택으로 지어 살다 광복 후 두고 떠난 집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적산가옥은 똑같은 구조의 집이 열 채씩 붙어 군대막사처럼 길게 늘어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1층으로만 이뤄진 단층빌라와 비슷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살던 집이라 다다미 구조였고 화장실도 실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먼저 살던 사람이 방을 넓히기 위해서였는지 화장실을 밖으로 빼내고 거기에 마루를 깔았어요. 우리 집 화장실만 밖에 있었지요.”

적산가옥 관리 주체는 정부였다. 당시 ‘영선공단’이란 곳에서 관리했는데 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열 채쯤 되는 맨 끝에 공단사무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끔 할부금을 내려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12평짜리 집은 방이 2개였는데 하나는 세를 주고, 그의 여동생까지 네 식구가 단칸방에 살았다. 이후 그가 결혼을 한 28세 때까지 종강은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1960년대 초는 집집마다 수도가 없어 공동우물이나 공동수도를 이용하던 시절이다. 운 좋게도 그의 가족은 수도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산 집의 전 주인이 수도국을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뺨’으로 집 끝에 공동수도를 개설했는데 어머니가 그것까지 함께 인수한 겁니다. 물 한 통에 10원씩 받고 팔았는데 수도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물 나올 시간이면 사람들이 통을 들고 와서 길게 줄을 서 있곤 했었지요.”

그렇게 하루종일 수도물을 팔면 계란 한 줄을 살 수 있었다. 어린 종강은 저녁상에 오를 계란찜을 생각하며, 손을 호호 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 옆을 떠나지 않았다.

송의동 187번지는 ‘물 나는 동네’(장마 때 물에 잠기는 동네)이기도 했다. 지대가 낮은 바람에 장마가 오면 어김없이 마당까지 물이 들어찼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집들은 아궁이를 보호하는 특수 도가니를 만들어야 했다. 연탄을 때던 시절이라 아궁이에 물이 차면 여간 곤혹스러웠게 아니었다.

“물 나는 동네에서만 쓰는 아궁이용 도가니가 있었어요. 그 도가니 덕분에 정강이까지 물이 들어온 경우는 있어도 아궁이가 물에 잠기는 일은 없었지요.”

송의동 187번지는 현재 KB국민은행과 KT송의빌딩이 있는 송의5거리와 맞닿아 있는 구역이다. 자동차공업사 뒤 남구민방위교육장 방향이 187번지 일대로 지금은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어린 시절의 놀이터, 송의동 미나리밭과 용현동 낙섬

1960년대만 해도 송의동 일대엔 너른 미나리밭(미나리논)이 펼쳐져 있



었다. 이 미나리밭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놀이터였다. 미나리밭은
 승의동에서부터 독재이고개 일대에 이르기까지 광활하게 분포돼 있었다.
 지금의 1호선 제물포역 북광장 구 인천대학교 일대도 미나리밭이었다.
 이 밭의 주인들은 화교들이 많았다.

“여름엔 야외수영장이자 붕어를 잡는 곳이었지요. 미나리논에는 농부
 들이 일할 때 타는 함지박 같은 양철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일을 안 할 때는 이 양철배를 논 한켠에 묶어놓거든요. 그 함지박을 몰래
 풀어 타고 노는 재미가 여간 쓸쓸한 게 아니었지요. 겨울엔 썰매장으로
 그만이었어요.”

1960년대 중후반쯤 승의동 일대엔 또 하나의 놀이동산이 들어선다. 장
 마철에 물이 낙점으로 빠지도록 조성한 배수로가 그것이었다. 배수로는
 승의동 187번지 앞쪽으로 흘러 낙점까지 이어졌다. 마땅한 놀이터가 없
 는 터에 생긴 동네의 시설물은 아이들에겐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배수로가 생긴 뒤 아이들은 ‘배수로 뛰어넘기놀이’를 만들어냈다. 배수
 로를 뛰어넘으면 이기고, 뛰어넘지 못하면 지는 게임이었다. 배수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멀리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와 잘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폭이었다. 그러나 이따금 배수로 석축에 부딪혀 다치는 아
 이도 나왔다. 지금 복개된 배수로 위로는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들이
 질주하는 중이다.

미나리밭과 배수로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한 장소는 지금의 제1, 제2경
 인 고속도로 중간쯤에 있던 ‘낙점’이었다. 낙점은 현재 웅진군청으로 들
 어가는 사거리에 위치했다. 토지금고라고 부르는 일대가 바로 낙점이 있
 던 자리다. 현재 능안삼거리에서 시작, 제일제당, 인하대병원을 지나 웅
 진군청 사거리까지 대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염전, 오른쪽은 갯벌이었다.
 제일제당에서 낙점까지는 소금을 실어 나르는 작은 수레인 ‘활차’가 다
 니는 철로와 오솔길이 나 있었고 아이들은 그 길을 따라 낙점에 닿았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활차를 미는 염부들이 “이놈들아, 낙점에 가면 안
 돼, 물에 빠지면 큰일난다”며 주의를 주곤 했다.

“지금 가보면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 것 같은데 그때는 낙섬까지 한참 걸어갔던 것 같아요.”

작은 산처럼 생긴 낙섬엔 커다란 미군 기름탱크 2기가 있었고 그 앞으로 저수지가 있었다. 아이들은 염전과 갯벌 사이를 지나 낙섬에 닿으면 너도 나도 풍덩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 저수지가 깊었으므로 매년 열너댓 명의 아이들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낙섬은 ‘위험한 놀이터’였던 것이다.

낙섬에선 이따금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물에 빠져 죽은 자식의 몸에 가마니를 덮고 통곡을 하는 부모들의 절규였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낙섬에 가지 못하도록 단속했지만 마땅히 놀 만한 곳이 없던 아이들은 여름이면 어김없이 낙섬을 찾았고 그렇게 매년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낙섬과 관련한 에피소드 한 가지.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꼭 하루 결석을 한 적이 있어요. 낙섬에 가서 하루종일 앉아 있던 날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이던 종강은 어느 날 학교로 향하던 발걸음을 갑자기 낙섬으로 돌린다. 고개를 푹 숙인 작은 아이는 자기보다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멘 채 터덜터덜 활차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낙섬에 이르자 저수지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때 같으면 옷을 벗어던지고 팬티만 입은 채 풍덩 뛰어들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종강은 갯벌 한켠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모두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었으므로 혼자서 수영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낙섬 안에서 기름 탱크를 지키는 미군병사들의 서성이는 모습도 보였다.

종강은 책가방을 멘 채 털썩 갯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한낮의 햇볕이 여간 따가운 게 아니었지만 마땅히 몸을 가릴 무엇이 없었다. 종강은 끼룩거리며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이 팬스레 알미워져 돌을 집어던졌다. 배도 고파왔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로도, 집으로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누엣누엣



질 때까지 종강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석양에 비친 종강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가 앉아 있던 갯벌에 점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멀리서 “종강아~, 종강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저녁시간이 됐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짐자전거를 빌려 타고 종강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종강은 그 소리가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대답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물이 찬 바닷가 끝자락 갯벌에 앉아 있는 아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자전거를 세우고 부랴부랴 갯벌로 내려왔다.

“종강아! 여기서 뭐하는 거야? 물 차면 큰일난다우.”

“...”

놀라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 앞에서 종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땀 뚝 같은 눈물만 툭툭 흘렸다.

“기래 기래, 내래 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우.”

아버지는 종강을 짐자전거 뒤에 태우고 덜컹덜컹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아버지의 허리를 꼭 잡은 종강은 생각했다. ‘아, 따뜻하다.’

“그날은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제가 미처 하지 못한 날이었어요. 깜박 잊었던 건지, 너무 어려웠던 건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거나 선생님과 급우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학교를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줄곧 반장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던 종강은 이날 하루 결석으로 개근상을 타지 못한다.

낙섬으로 가는 활차 길은 현재 송도국제도시와 용현동을 잇는 10차선 대로 ‘배소홀로’가 됐고, 양 옆으로 고층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한 매립으로 낙섬과 함께 수인역, 남항부두, 연안부두가 탄생했으며 라이프아파트 역시 매립 뒤인 1970년대 초반 건설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방정부 재정으로 이 일대 약 495만 8677m² (약 150만 평)를 매립했고, 열악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대기업인 한진그룹 등에 매립지를 팔아 정석빌딩을 짓도록 했다.

자유공원에서 인천항구의 불빛 바라보며 호연지기 길러

낙섬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놀이터였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놀이터는 단연 자유공원이었다. 자유공원 바로 옆 인천중학교(21회 졸업 · 1968~1970)와 제물포고등학교(18회 졸업 · 1971~1973)를 다닌 종강에게 자유공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

자유공원은 우선 인천지역 학생들이 많이 찾는 젊음의 해방구이자 소통의 공간이었다. 소풍을 오는 학교도 있었고 그림을 그리러 오는 미술반 학생들도 넘쳐났다. 한낮에 '농땡이'를 치고 자유공원에 가서 노는 급우들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 야간자습을 끝내고 학교도서관을 나오면 밤 10시. 종강은 집에 가기 전, 자유공원에 잠깐 오르는 것을 즐겼다. 무엇보다 인천항의 밤 풍경을 보기 위해서였다.

“학교 옆에 있다 보니 자유공원에 자주 올라갔어요. 거기서 뭐 특별히 논 건 없는데 올라가면 인천항 야경이 다 보이고 하니깐 그게 좋았어요.”

검푸른 밤하늘에 점점이 박힌 별빛처럼 반짝이는 항구의 불빛, 광활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나가는 거대한 카페리호. 자유공원에서 바라보는 인천항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가보지는 못 했지만 저 유럽의 지중해보다도 더 훌륭할 것 같았다. 이 야경에 반해 자신의 미래를 마도로스로 정한 친구들도 있었다.

그렇게 야경에 취해 멋진 미래와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다 보면 어디선가 “애~앵~” 하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 “청소년 여러분, 밤이 늦었으니 속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때 요란하게 울렸던 사이렌은 지금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리여석 씨가 운영하는 카페 ‘파랑돌’ 앞에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은 문예반 활동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고 문예반은 수백 명의 입학생 중에서 소수 몇 명만 뽑아요. 저희



때는 600명 중에 3명이 뽑혔지요.”

글 쓰는 것을 좋아해 제고 문예반에 들어간 종강은 매일 방과 후 선배들과 만나 시를 쓰고 비평을 한다. 그리고 1년 내내 <춘추>라는 교지 제작에 매달렸는데 전국 고교 교지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잡지였다. 제고 문예반은 전국대회에 나가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한글날엔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에서 백일장이 열리고, 현충일엔 국립묘지에서 백일장이 열리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학교 대표로 나가면 전국의 날고 긴다는 문학소년소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때는 전국의 각 학교마다 소문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럼 재는 누구래 하며 수군거리곤 했지요.”

이처럼 ‘하드 트레이닝’ 한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는 1년에 한 차례, 일주일 정도 개최하는 시화전에서였다.

“매년 신포동 공보관 건물에서 시화전을 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보여주는 자리였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 문예반의 문학소년소녀들끼리 교류도 하고 축하도 해주는 자리가 되었지요. 그 공보관 건물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바뀐 신포동 정우현상소 옆 건물이 바로 당시 인천에서 유일한 전시공간이었던 공보관 자리다. 지금의 어린이집은 수년 전 공보관을 헐고 새로 지은 건물이다. 이 공보관건물의 철거방침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계는 문화적 가치를 들어 반대를 표명했지만 시는 결국 철거를 강행한다.

당시 제고는 문예반뿐만 아니라 명문대를 많이 가는 학교로도 유명했다.

“저보다 훨씬 선배들 얘기이긴 한데 동아일보 4컷 만화인 고바우에 집을 써서 인천으로 이사 가자는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길영희 교장 선생님이 계실 때인데 서울대 전과 수석을 휩쓰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거든요.”

최원식(12회) 인하대 교수, 백영서(16회)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많은

학자와 문인들이 제고 문예반 출신이다. 것처럼 유명한 문예반을 중심으로 고교시절을 보낸 그가 어찌서 국문학과를 가지 않고 인하대학교 응용물리학과에 진학한 것일까.

“글쎄, 그때 좀 건방진 생각이 있었어요. 공부해서 글을 본업으로 삼으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설 하나만 봐도 수많은 직업군이 등장하잖아요? 생활인으로서 글을 써야 그게 진솔한 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인즉슨, 진정한 문필가가 되려면 여러 분야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굳이 글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있으며, 실력을 쌓기 위해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믿음이기도 했다. 그는 어떤 직업을 갖든 소설이나 시를 쓰는 문학인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그 꿈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1994년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그가 놓지 않은 꿈의 과정에서 만난 작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문학상을 받으려고 쓴 건 아니고요. 제가 노동분야 일을 하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일기처럼 기록해놨는데 그게 기록문학으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한국 노동운동 속의 단상들을 기록해봤어요.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최원식 교수였는데 제가 제고 문예반 출신이라고 하니깐 ‘너 소설 써야겠더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가족들에게 말하곤 해요. 더이상 사람들이 날 찾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그때 정말 좋은 소설 한 편을 쓰고 싶다고.”

그가 자신의 꿈 하나를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아마 은퇴하지 못할 거다’ 라고.

인하대 입학하며 의사 박사의 꿈이 학생운동, 노동운동가로

문학인이 되겠다는 꿈을 여전히 간직한 채 인하대를 택한 것은 집에서 걸어 통학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승의동에서 출발해 독쟁이를 넘



1975년 인하대정문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맨 앞쪽 오른쪽 끝이 하종강이다.

어가면 바로 학교였다. 지금은 남구와 남동구를 잇는 주도로로 많은 건물이 들어섰지만 독쟁이 일대 역시 그의 대학시절엔 미나리밭이 펼쳐져 있었다.

하종강이 대학에 입학한 해는 1974년. 박정희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러던 유신시대에 대한민국 74학번으로 진학한 것이다. 대학생이 된 종강은 지금껏 자신이 몰랐던 세상과 맞닥뜨린다. 세상의 진실을 발견한 뒤 깜짝 놀란 그는 두문불출한 채 깊은 고민에 빠져든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한다. 박정희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 독재를 가능하게 한 한마디로 박 대통령

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긴급조치 시대였잖아요.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더구나 고등학교 때 문예반 선배들이 다 빵집이(수감자)가 됐어요. 멀쩡한 선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첩이라고 사진이 나오고, 징역 15년씩 받고 이러니까 시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운동을 할 것인가, 개인적인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두 갈래 길 앞에서 그는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는 작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뒤척이며 아예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처음 의사의 길에서, 20대 박사도 인생목표를 전환하며 택한 대학이었다. 그렇게 사나흘을 고민한 끝에 하종강은 의사도 박사도 아닌, 운동의 길을 선택한다.

대학신입생 하종강은 글을 쓰는 연장선으로 학보사에 지원한다. 지금이야 스펙 쌓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보사 기사를 모시러 다녀야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학보사 기자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달했다. 기사 작성은 물론 논술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학보사 기자가 될 수 있었다. 이념서클의 본산이던 학보사에서 그는 시대의 아픔을 절감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전념하기로 결심한다. 학보사 기자 생활을 하며 성명서 등을 주로 쓰던 그는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한다. 1979년 복학한 그는 10·26사태를 거치고 1980년 민주화의 봄을 맞으며 다시 학생운동에 뛰어든다.

1980년 5월 15일, 동인천역 앞 광장. 5천 명이 넘는 인하대생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동인천역 앞 광장에서부터 경동 고갯길을 넘어 답동성당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행렬로 발디딜 틈이 없다. 5월 광주항쟁이 터진 이후 수배 상태였던 하종강은 학원민주화운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학도호국단’이었던 대학생 조직을 총학생회로 바꾸는 사업을 이끄는 총책임자였다. 총학생회장은 대학총장이 지명한 사단장으로 불리던 시절이었다.

“애국 인하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독재자를 몰아내고 조국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꿈을



품고 상아탑에 있어야 할 우리가 왜 거리로 뛰어나와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국의 강철대오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인천이 독자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하종강을 비롯한 인천지역 학생운동권 수뇌부는 이날 지역 운동권 선포식을 갖고 인천에서 독자적인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선포식 뒤 태극기를 앞세운 학생들이 밀물처럼 역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태극기를 앞세우고 밀려드는 학생들을 제지하는 역무원도 없었다.

“철커덕, 철커덕” 전철이 서울역에 닿을 때까지 학생들의 노래와 구호는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서울역 광장에 이미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구름처럼 운집해 있었다. 학생들은 전두환 사퇴,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5·15 남대문전투’였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날 학생들의 무임승차로 철도청에서 학교에 승차요금으로 200만 원인가를 청구했고, 학교에서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동인천역 앞에서 답동성당에 이르는 대로는 이후로도 인천지역 학생, 사회, 시민운동의 집회와 시위장소로 자리해 왔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운동단체들이 모이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앞서 1960년 4·19 때도 인하대의 전신인 인하공과대학생 100여 명은 답동성당 앞에서 인천의 4·19 혁명을 전개한 바 있다.

5·15 남대문전투 이틀 뒤인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가 선포됐고 18일에 광주항쟁이 터진다. 이후 하종강은 여러 번 체포돼 고문을 당한다. 그렇게 사흘 밤, 사흘 낮을 거꾸로 매달려 갖은 악랄한 고문에 시달리다 누군가의 이름을 대고서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다. 그 역시 고문을 당하던 누군가로부터 지목돼 잡혀간 경우도 있었다.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하종강은 지명수배를 피해 부천 원미동 작은 석유가게에 취직해 몇 달 간 숨어 지내기도 했다. 그때 슬리퍼를 짝짝 끌며 다방에 석유 배달을 가보면 자신의 사진이 수배전단에 붙어 있곤 했다. 다른 학생들의 경우 학적부를 복사한 것이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시위

현장에서 메가폰을 자주 들었던 하종강의 사진은 너무도 선명했다. 학생 운동권은 졸업 뒤, 혹은 재직 뒤 노동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연스런 코스였다. 그렇지 않으면 '변절자'란 비난을 받는 시대였다. 지금의 동구 화수1동 일꾼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졸업을 하던 1982년이다.

노동운동의 본산, 동구 화수동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2013년 1월, 새파란 겨울 하늘 아래 작고 새하얀 십자가가 오롯이 하늘을 향해 서 있다. 어느 교회처럼 뽀족한 첨탑에 붉은 네온을 한 거대한 십자가가 아닌 데도 다른 그 어느 화려한 십자가보다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2층으로 된 살색건물 위로는 콘센트옥탑방이 하나 얹혀져 있는 모습이다. 벽면에 쓰여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일꾼교회 사회복지선교회'란 명조체의 초록색 글씨가 왠지 정감 있게 다가온다. 교회는 크고 작은 빌라들과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봇대에 둘러싸여 있다. 30여 년 전 이 자리엔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가 있었다. 기와집들 사이에 나무로 열기설기 엮은 작은 공간이었다. 하종강이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조직사업, 노동 상담 등을 하며 일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1980년부터다.

“1980년 9월부터 참여했는데 그때 지금은 안 계신 고 김근태 선배가 지하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으셨어요. 인천에서 학생운동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운동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지요.”

당시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감시와 통제가 극심한 시대였다.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는 말하자면 지하운동조직의 본산이었다. 노동법을 공부했던 하종강은 이곳에 노동상담소를 차리고 노동운동의 핵심인 조직사업에 뛰어들었다. 1980년부터 일한 건 사실이지만 이곳을 드나들기 시작할 때는 그보다 훨씬 전인 제고 문예반 시절부터였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건물에서 인천지역 고교생 서클모임이 있었어요. 문예반 활동 하면서 글 좀 쓰네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독서모임이



인천 송월동에서 태어나 현재 연수구에 살고 있는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천을 떠난 적이 없다. 그는 “인천에서의 삶은 내 30년 노동운동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었는데요. 제고, 인천고, 인일여고, 인천여고 네 학교가 모인 등대클럽이라는 모임이었어요.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던 모임이었지요. 그런데 제 기수에서는 인일여고가 없었는데 인천여고 학생들과 싸워서 나갔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서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걸리면 정학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 모르게 모임을 갖곤 했지만 어찌다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학을 맞거나 그러면 지도교사가 수십 년 된 문집을 갖고 학교를 찾아옵니다. 이 독서모임이 수십 년간 이렇듯 건전하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곳 말고도 인천지역의 고교 서클이란 서클은 다 모이는 장소가 또 있었다. 창영초등학교 옛 건물이 그곳이다. 제고, 인고, 인천여고 문예반 학생들이 1924년 세운 이 건물 한켠에 있던 방으로 아지트를 옮긴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모임마저 들키는 바람에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그때 한국 위장취업자 1호라고 얘기되는 조화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동일방직에 직접 들어가 동일방직사건의 중심이 됐던 분이지요.”

조화순牧사는 지식인으로서 노동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 노동운동을 한 대한민국 첫 번째 케이스로 알려진 인물이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인천여고, 감리신학대를 졸업한 뒤 덕적도에서 첫 시무를 했다. 1966년 목사안수를 받은 그녀는 그해 10월부터 인천산업선교회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적극 가담한다. 긴급조치위반으로 1974, 1978년 2차례 서대문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1980년 노동자 선동 등의 이유로 연행되기도 했다. 유신반대,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가족법 개정 등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몸 바친 여성노동운동의 화신이다.

“조 목사님은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실무자로 일할 전도사를 모집할 때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때 채용조건이, 선교활동을 하려면 공장에 들어가 1년 동안 현장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가도 현장체험 조건 때문에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화순 목사님은 흔쾌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신 분이지요.”

고교 때 처음 인연이 된 도시산업선교회를 다시 찾은 건 대학교 1학년 때다.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 재판기록을 어렵게 구한 하종강은 이를 복사하기 위해 도시산업선교회를 다시 찾는다. 도시산업선교회에 ‘등사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철필로 굵어 쓴 원지를 붙인 망판 위에 잉크를 묻은 물러를 굴려 인쇄하는 등사기로 밀어 복사를 하던 시대였다.

“고등학교 때 인연을 떠올리고 한달음에 도시산업선교회를 찾아갔어요. 재판기록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등사를 부탁드렸지요.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시산업선교회 관계자가 캐비닛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재판자료 수백 권이 쌓여 있었다. 입이 딱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는 하종강에게 교회 관계자는 자료 수습 권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자신은 어렵게 어렵게 목숨 걸고 구한 자료가 교회엔 널려 있었다. ‘이런 게 바로 운동이구나.’ 대학 새내기 하종강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고 운동에 대한 열정을 다지게 된다.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는 이처럼 하종강의 고교시절부터 20대를 지나 30대 초반까지의 삶터였다.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만난 고 김근태 씨는 평생 잊지 못할 선배로 남아 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국회의원 하기 전, 민청련의 장을 맡기 전 숨어서 활동하던 시기의 김근태 선배입니다. 정말 진지한 분이셨어요. 노동자들이 모이면 걸쭉한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음담패설도 막 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노동자성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김근태 선배는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명이 김진지였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선배가 나이 어린 노동자들과 어떻게든 어울리고 싶은데 워낙 진중하다보니 이게 소통이 어려운 겁니다. 선배가

하루는 어디선가 음담패설을 배워왔습니다. 자기 댄에는 노동자들과 친근해지기 위해 어디선가 그런 말과 이야기를 배워온 거죠. 그런데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음담패설을 아주 진지하게 하는 김근태 선배의 모습을. 물론, 노동자들이 저 얘길 뭐 저렇게 진지하게 하느냐며 더 재밌어하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하종강은 고 김근태 씨 밑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자 교육과 노동조합 성명서 작성 등의 일을 하며 노동운동가로서의 나이테를 쌓아간다.

동구 만석동 판자촌에서 무럭무럭 자란 노동운동가의 꿈

노동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1982년부터 하종강은 만석동 판자촌 봉사활동을 병행한다. 만석동 43번지. 바닷가에 자리잡은 이곳은 일명 ‘뽕이부리말’이라고도 불리는 인천의 대표적 판자촌이다. 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일방직투쟁이 집중적인 탄압을 받자 조직은 잠시 방향을 틀기로 한다. 노동운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자 길으로는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모양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인 민들레의료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만석동은 바닷가에 열기설기 천막을 치고 수백 가구가 모여 살고 있었다. 한국 전쟁 때 이북에서 피란 내려온 사람들이 전쟁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자며 일시적으로 형성한 마을이었다. 그 천막은 나중에 판잣집으로 변해갔다.

“마을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안 가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낮에도 골목이 캄캄하고 얼마나 좁은지 한 사람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지요.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빠져나가야 하는 골목인데 여기 문 열면 이 집 안방이고, 저기 문 열면 저 집 안방이고 그런 구조였어요.”

하종강은 이곳에서 주말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며 아예 들어가 사



는 활동기들도 있었다. 한번은 그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봉사활동을 하겠다며 만석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1주일이나 지나도록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어야 했다. 당시 만석동엔 바닷물로 자동세척되는 커다란 공중변소가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곳까지 찾아가는 길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다. 길을 걷다보면 미로처럼 같은 길을 맴돌고는 했던 것이다.

“내가 사는 하늘 아래 이런 동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게 커다란 부채감으로 남더군요. 그 부채감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만석동 공중변소는 대단한 명물이자 동양 최대 규모였다. 만석동 공중변소는 모든 정보가 교환되는 마을 소통의 장소이기도 했다. 수십, 수백 명이 바닷가 앞 대형 변소에서 아침마다 휴지를 들고 서서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은 이제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 만석동 43번지 천막, 판잣집은 더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빌라와 아파트들이 들어섰으며 한켠에선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종강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천을 떠나지 않았다. 송월동에서 태어나 송의동에서 성장한 그는 구월동, 만수동을 거쳐 지금은 연수구에 살고 있다. 그가 “고향 인천에서의 삶은 내 30년 노동운동의 토대가 됐고 나를 지켜왔다”고 말하는 이유다. ②

金眞國. 인천일보 기자. 1966년생. 청주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박사 수료. 주요저서 『살아 숨 쉬는 인천여행』, 『정조의 혼 화성을 걷다』, 『고려왕조의 꿈 강화 눈 뜨다』, 『천년의 얼 대장경향기를 따라』 등. jinkukci@hanmail.net